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쟁점 및 과제*

이영아

청주교육대학교

ARTICLE INFO

Received: 31 December 2021

Revised: 26 January 2022

Accepted: 4 February 2022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

KEYWORDS

*English curriculum/
key competencies/
achievement standards*

영어과 교육과정/
핵심 역량/성취기준

ABSTRACT

Lee, Young-A. (2022). Development of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Issues and challenges. *Modern English Education*, 23(1), 28-41.

This study explores issues and challenges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through an in-depth research synthesis in the field. To this end, RISS, a major electronic database in Korea, was searched, and the search results were manually screened to identify relevant studies. A total of 42 academic journal articles and policy research reports were finally analyzed to pinpoint issues and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restructur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ur main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synthesis: 1) identifying and defining subject competences as well as reflecting them comprehensively in the curriculum document; 2) designing a valid framework for organizing learning contents not only to show the sequence and continuity of the contents but also to address a lack of clarity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3) reexamining the level and continuity of achievement standards; 4) differentiating high school electives in terms of their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addition to ensur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elective curriculum. The study conclusion provides insights that can guide future research.

I. 서론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2022년 하반기에 교과별 교육과정을 고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총론 개정의 중점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2년에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학교 영어 수업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교사 연수와 교과서 개발 등 막대한 재원과 사회적 노력을 요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이 2011년에 고시된 지 불과 4년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잦은 개정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던 점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J. R. Kim(2015)도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의 반대 용어인 ‘노시보 효과’에 빗대어 잦은 교육과정 개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목적, 내용,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다”(p. 93)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적절한 개정 주기와 관련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7년만의 개정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에 대한 선부른 평가보다는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의 필요성은 최근 Covid-19으로 촉발된 사회적, 교육적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의사소통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H. Kim, 2021). 또한 최근 교육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학습 결손 및 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도 있다. 영어 교육의 현안 중 하나가 학생들 간의 성취 수준 격차임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 교육적 변화의 반영과 함께, 영어과 교육과정 자체의 완성도와 질적 개선도 피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는 교과역량의 명시 및 이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제시, 학년군별, 학교급별 필수 학습 내용을 구조화한 내용체계표 도입,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내용 적정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군의 도입으로 압축할 수 있다(S. H. Kim, 2017; C. B. Imm 외 20인, 2015; C. B. Imm 외 26인, 2015). 이 중 새롭게 도입된 교과역량이나 내용체계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이전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연구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2009 개정 시기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S. Lee(2012)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어 학계의 무관심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관련 연구를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학술지 논문과 정책연구보고서를 주제별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II.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분석, 평가 등에 대한 학술지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

발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RISS'를 활용하였다. 교육과정 관련 연구는 개인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로 많이 수행되는데, 'RISS'는 학술지 논문과 정책연구보고서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영어 교육 분야 학술지의 원문을 제공하는 '교보스콜라'나 'DBpia'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계약된 학술지에 대한 검색만 가능하지만, 'RISS'는 국내 학술지 논문 및 원문제공처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한 점도 고려하였다. 검색 조건의 설정에서는 '영어+교육과정'을 제목에 대한 검색어로, 기간은 2013년~2021년으로 하였다. 2013년을 시작 기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초기 정책연구 C. B. Imm 외 8인(2013)의 연도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 총 191건의 학술지 논문과 34건의 보고서가 산출되었으며, 개별 자료의 초록을 읽어보면서 추가 선별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원문제공처로 인해 중복 검색된 자료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제외된 자료의 상당수는 제목에 '영어+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이거나, 국가 수준의 영어과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부록에 해당하는 '별표' 내용은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과정 문서의 '별표' 영역에는 '소재',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어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방대하고 별도의 논의를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 15건, 학술지 논문 27건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2. 분석 방법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통합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을 계량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보통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양적 분석 방법이다(Norris & Ortega, 2006). 질적 분석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수집하여 연구 주제나 시기, 연구 대상이나 방법, 결과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연구의 동향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Y. Kim & J. Kim, 2015).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영어과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로서 다양한 방법과 자료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적 통합이 가능하지 않아 질적 분석의 접근을 취하였다. 그리고 두 단계의 분

석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개발의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 입력과 정리 및 분류 단계로서 개별 연구들의 목적과 내용, 방법, 주요 결과를 엑셀에 정리하였다. 입력 과정에서 학술지 논문이지만, 보고서 일부 자료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한 경우 중복되는 자료임을 표기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및 개발 과정을 분류 기준으로 하였다. Graves(2014)는 교육과정 개발에 계획(planning), 실행(enacting), 평가(evaluating)의 세 과정이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Brown(2007)은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상황 및 요구 분석(situation and needs analysis), 목표 설정, 교수요목 개발(내용 선정 및 조직), 자료 선정 및 개발, 교수(teach), 평가(학생, 교사, 프로그램), 교육과정 수정의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이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크게 네 가지 주제 분야로 분류하였다. 첫째 분야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요구 조사, 방향 탐색’으로서 본격적인 시안 개발에 앞서 현장의 요구 분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문헌 분석을 토대로 개정 방향 및 개정(안)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보고서 6건과 논문 7건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이들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국외 교육과정 및 분석, 문헌 연구, 설문조

사도 포함하였다. 두 번째 분야는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로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협의의, 공청회, 현장적합성 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한 보고서 2편이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교육과정 문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분석’으로,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문서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들이다. 보고서 1건과 논문 8건이 이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연구 방법은 문서에 대한 질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 주제 분야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인식(적용, 모니터링, 평가)’으로서 개정 교육과정의 적정성이나 실행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거나 학교 적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로서, 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활용하였다. 보고서 6건, 논문 12건이 해당되었으며, 네 주제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분야이다. 주제 분야별 보고서 및 논문과 분야별 편수는 표 1과 같다.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코딩 및 분석 단계로, 먼저 엑셀 파일에 정리된 연구 결과를 읽으며 주제어 코딩을 실시하였다. 주제어는 연구 결과의 내용과 관련된 교육과정 문서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로 구성되므로 이와 관련되도록 코딩하되, 내용에 부합하도록 ‘교과역량의 개념’, ‘성취기준 진술의 명료성’, ‘목표와 성취기준 연계성’ 과 같이 구체

TABLE 1
Research Reports and Journal Articles Analyzed

Purpose	Methods	Types	Studies	N (%)
Preliminary studies (Needs analysis & Exploring directions)	Delphi method Expert panel Survey	Report	C. B. Im et al. (2013), I. Kim et al. (2014) M. K. Lee et al. (2014), S. Lee et al. (2019) H. M. Joo et al. (2021), U. Maeng et al. (2021)	6 13 (30.95%)
		Article	M. Lee (2014), Y. A. Lee (2015a, 2015b), W. Lee (2015) B. C. Lee (2020), M. Lee & H. Jung (2020), G. No (2021)	7
Curriculum development	Expert panel/ Survey	Report	C. B. Imm, M. Lee, H. Lee, S. H. Kim, H. M. Joo, B. Cho, S. Y. Yim, J. S. Kim et al. (2015) C. B. Imm, M. Lee, H. Lee, S. H. Kim, H. M. Joo, B. Cho, S. Y. Yim, Y. Park et al. (2015)	2 2 (4.76%)
		Report	H. M. Joo et al. (2020)	1
Analysis & Evaluation	Document analysis	Article	P. A. Hwang (2016), S. Lee (2016), S. H. Kim (2017) Y. Kim (2018, 2019), J. Jeon & J. R. Kim (2018) M. Kim (2019), S. Y. Yim (2020)	9 8 (21.43%)
		Report	J. R. Kwon et al. (2016a, 2016b), S. H. Kim et al. (2019) J. K. Pae et al. (2019), J. K. Pae et al. (2020), J. K. Pae et al. (2021)	6
Teacher perceptions (Applications, Monitoring, & Evaluation)	Survey Interview	Article	K. Park (2014), J. J. Kang (2016) K. M. Lee & S. Y. Chun (2017), H. R. Kim (2018) S. R. Park (2018), S. H. Kim (2020, 2021), J. K. Pae (2020, 2021), B. C. Lee (2021a, 2021b) J. K. Pae & H. M. Joo (2021)	18 12 (42.86%)
Total				42 (100%)

화하여 주제어를 정하고 코딩하였다. 코딩이 완료된 후에는 유사성에 따라 주제어들을 범주별로 분류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III.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과 과제

1. 교과역량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반영

H. Han 외 3인(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2000년대 초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이다.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국가 교육과정을 핵심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 핵심역량 6가지를 제시하고(Ministry of Education, 2015a),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역량으로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함께, ‘자기관리역량’, ‘공동체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교육과정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에 관련된 주요 쟁점은 교과역량 설정의 타당성과 개념 정립 문제, 그리고 역량의 교육과정 반영 및 현장 적용 문제이다.

1) 교과역량 설정 및 개념 정립 문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전후로 교과역량의 설정 및 개념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화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가 시기별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2022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쟁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과의 목표와 특성에 비추어 무엇을 교과역량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수행된 기초 정책연구에서 다루어졌다. C. B. Imm 외 8인(2013)은 영어과 핵심역량 선정, 역량의 의미와 요소를 탐색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핵심역량의 교육과정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지에 제시된 역량 항목이 19개에 이르렀다. 역량의 개념 및 명칭이 정선되지 못하였고, 초기인 만큼 다수의 역량을 대상으로 탐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수행된 문이과 통합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인 I. Kim 외 6인(2014)은 총론 연구팀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총론과 연계하여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능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처리력’의 7가지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역량’

이 아닌 ‘능력’을 명칭에 사용하였다. Y. A. Lee(2015a, 2015b)는 이들 중 일부 역량의 명칭을 변경하여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기관리능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으로, ‘시민의식’은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변경되었다(표 2 참조). 이들 초기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고, ‘국제사회 문화이해’ 또는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동의 정도도 다른 역량에 비해 높았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나머지 역량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다소 흥미롭다. 교사, 교수, 정부기관 관계자가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C. B. Imm 외 8인(2013)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수와 교사 모두 참여한 I. Kim 외 6인(2014)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Y. A. Lee(2015a, 2015b)에서 교사들은 ‘문제해결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5년에 수행된 교육과정 시안 개발 1차 연구 C. B. Imm 외 20인(2015)에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방성 및 유연성’, ‘정보 활용 능력’을 교과역량으로 제시하고, 각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를 명시하였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능력’이 ‘역량’으로 수정되었으며, 각 역량의 명칭도 수정되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자기관리 역량’으로 ‘개방성 및 유연성’은 ‘공동체 역량’으로 수정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교과역량의 설정에 대한 논의는 2022 개정을 앞두고 수행된 정책연구 H. M. Joo 외 7인(2021)과 U. Maeng 외 8인(2021)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역량의 타당성과 추가로 반영할 역량을 조사하였으며, 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를 정선하여 제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영어교육 전문가(교사, 교수)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H. M. Joo 외 7인(2021)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역량들은 명칭 변경 등의 수정 의견이 우세하였다. 추가할 역량으로는 ‘창의적 사고역량’ 등이 제안되어, 5개 역량을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U. Maeng 외 8인(2021)은 이들 5개 역량의 명칭을 수정하고, 각 역량의 상이한 하위 요소들을 묶어 줄 수 있는 ‘중범주’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의사소통역량’은 ‘언어적 요소’와 ‘전략적 요소’의 중범주로 구성되며, ‘언어적 요소’에는 “영어 이해 능력, 표현 능력, 담화 파악 능력”(p. 113)을 ‘전략적 요소’에는 “언어 외적 의사소통 요소 이해능력, 협력적 상호작용

용 능력”(p. 113)이 포함되었다. 이상과 같이 영어과 교과역량의 설정 및 명칭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는데 연구마다 언급된 역량의 명칭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다수의 정책연구를 통해 영어과 교과역량을 설정하고 개념 및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교사들과 연구자들은 여전히 역량의 개념이 생소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K. M. Lee & S. Y. Chun, 2017; S. Lee, 2016). 먼저 ‘역량’이라는 용어와 일부 역량의 명칭 자체가 생소하다는 것인데, ‘의사소통능력’ 대신 ‘의사소통역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도 의미가 포괄적이며 용어 자체도 직관적이지 않고 생소하다는 지적이 있다(S. Lee, 2016; U. Maeng 외 8인, 2021). 표 2에 따르면 ‘자기관리역량’은 ‘자기주도학습역량’으로 수정되어 논의가 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공동체역량’, ‘협력역량’, ‘문화이해역량’은 여전히 상호 간 관계

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역량’과 다른 역량들의 비중 및 위계, 역량 간 하위 요소들의 중첩, 동일 역량내 하위 요소들의 상이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로 다른 역량 간의 중첩 문제에 대하여 S. Lee(2016)는 교육과정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에 대한 정의가 ‘의사소통역량’과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영어과 고유의 목표나 내용이 될 수 없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영어로 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중복되는 부분이며, 정보 윤리는 영어과 고유의 목표나 내용이 되기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수행된 U. Maeng 외 8인(2021)의 교과 역량(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하위 요소인 ‘정보 수집 및 분석, 활용 능력’과 ‘디지털 소통 능력’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차별성이 있지만, 의사소통역량의 이해 및 표현 능력과 차이가 없다. ‘창의적·비판적 사고역량’의 하위 요소인 담화에 대한 해석과 추론 능력도 의사소통역량과 중복된다.

하위 요소들 간의 상이성 및 결합성 문제는 주로 ‘공동체역량’에 대하여 지적되었다. K. M. Lee와 S. Y. Chun(2017)은 “공동체 역량의 경우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과 함께 문화 정체성과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이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p. 321)고 언급한다. S. Lee(2016)도 이들을 모두 공동체 역량에 포함하기에는 요소들 간결합성이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문제점과 관련해 H. M. Joo 외 7인(2021)은 ‘공동체 역량’ 대신 ‘문화이해 역량’과 ‘협력 역량’을 병기하여 제시하였고, U. Maeng 외 8인(2021)은 ‘협력 역량’을 삭제하였다.

종합하면, 영어과 교과역량의 명칭과 개념은 이전보다 정선되었으나, 여전히 역량 간 하위 요소의 중복 문제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차기 교육과정 개발 시에는 교육과정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의 명칭 사용, 역량별 하위 요소의 상호 간 중첩 해소, 동일 역량 내 요소들의 결합성 제고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역량의 개념 자체를 상기하면,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간단하지는 않다. 역량이란 특정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는 능력으로서,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H. Han 외 3인, 2018), 여러 역량들을 완전히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문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역량’과 다른 역량들 간의 중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역량’의 비중과 학문적 정의를 고려하여 역량 간에 위계를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TABLE 2
Key Competences Suggested in the Literature

References	Competences
I. Kim et al. (2014)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management competence Citizen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Creative thinking Problem solving Information processing
Y. A. Lee (2015a, 2015b)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management competence Global citizen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Creative/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Information processing
C. B. Imm, M. Lee, H. Lee, S. H. Kim, H. M. Joo, B. Cho, S. Y. Yim, J. S. Kim et al. (2015)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regulated learning competence Openness and flexibility Information literacy
Ministry of education (2015b)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management competence Community competence Knowledge-information processing
H. M. Joo et al. (2021)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regulated learning competence Cultural competence (cooperative competence) Digital competence Creative thinking/Critical thinking
U. Maeng et al. (2021)	Communicative competence Self-regulated learning competence Cultural competence Digital literacy Creative·Critical thinking competence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개념(Bachman, 1990; Canale & Swain, 1980; Celce-Murcia et al., 1995; Hymes, 1992)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능력’에 도달하기 위한 하위 역량으로서 언어역량, 문화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협력 역량, 디지털 역량, 창의적·비판적 사고 역량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역량의 교육과정 반영 및 현장 적용 문제

교과역량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교육과정 문서 및 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반영 문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격’에 교과역량 네 가지와 의미를 제시하고 목표도 일부 연계하였지만, 성취기준에는 ‘의사소통역량’만이 반영되었다. 교과역량이 문서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K. M. Lee와 S. Y. Chun (2017)은 “구색은 갖추었으나 따로 노는 어항 속 물고기들”(p. 319)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 역량의 성취기준 반영 정도를 분석한 M. Kim(2019)도 “성취기준 진술은 빈도와 중심성 값에서 영어 의사소통 역량으로 크게 편중되어”(p. 108)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장 교사들의 인식도 이러한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J. K. Pae(2020, 2021)와 J. K. Pae 외 4인(2021)에서 교사들은 교과 역량의 적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육과정에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교과역량의 현장 적용을 위해 이들을 성취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역량이 성취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량의 교육과정 반영 방식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는 I. Kim 외 6인(2014)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교육과정 문서 항목별로 역량 반영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성격 및 목표’와 ‘교수·학습’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평점이 5점 척도에 각각 4.43과 4.2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용(성취기준)’과 ‘평가’에의 반영은 각각 4.0과 4.07로 긍정적인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한 J. R. Kwon 외 7인(2016a)에서는 역량과 성취기준이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년군별 발달 단계에 따라 성취 기준을 세분화하면서도 연계성 있게 명시하기 어렵고, 자칫 이들 역량이 상호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교수·학습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p. 412)고 하였다. 2022 개정을 앞두고 수행된 정책연구 H. M. Joo 외 7인(2021)에서는 전문가 30인 중 3인이 공동체역량의 삭제 제를 제안하였는데, 주된 이유로 성취기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U. Maeng 외 8인(2021)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교과역량 설정에 동의하였지만, “역량을 과연 어느 정도 영어 교과와 직접적인 연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학습현장에서 적용과 실행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려를 표명”(p. 67) 하였다.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교과역량을 성격과 목표뿐만 아니라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역량의 하위 요소들을 위계화하여 성취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영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교과역량을 성취기준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 M. Joo 외 7인(2021)은 자기관리역량의 하위 요소인 학습전략이나 의사소통전략과 관련하여 유럽의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에서는 이들을 A1~C2까지 여섯 단계별로 수준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조한다면 위계화 및 성취기준 진술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 U. Maeng 외 8인(2021)은 대만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역량과 성취기준 연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만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도입하면서 이를 학습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계하고 있고, 성취기준 영역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기능 통합 외에 “(6) 학습 흥미와 태도’, (7) 학습 방법과 전략’, (8) 문화이해’, (9) 논리적인 사고, 판단력과 창의성’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년군 별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p. 42)고 하였다. Y. Kim(2019)은 문화 영역의 성취기준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생활외국어 교육과정의 사례를 들면서,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존중하고 공감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B. C. Lee(2020)는 문화 습득 단계를 적용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전 단계로서 문화 인식(awareness)의 수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문화 간 의사소통 단계로 문화 수용(acceptance)과 적응(adaptation) 수준의 성취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과역량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도 있었다. J. R. Kwon 외 7인(2016a, 2016b)은 자기관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으로서 학습자 발발 및 수행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학습 계획과 과정에 대한 상위 인지 활성화를 위한 KWL차트 만들기, 예측하기나 요약하기 등의 학습 전략 교육, 다독을 위한 독서록 작성, 성장참조형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다문화 동화 활용 수업, 협력적 쓰기 활동, 프로젝트 수업 등을 제안하였다. H. R. Kim(2018)은 수업 컨설팅 사례로서 교과역량 함양을 위

한 프로젝트 기반의 영어와 진로 지도 통합 수업을 소개하였다. J. J. Kang(2016)은 교사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며, 언어 기능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영어 수업보다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도 꾀할 수 있는 BI-CBI(Bilingual Centered-Content Based Instruction)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교과역량의 반영 및 현장 적용에 관련한 문제점은 역량을 위계화하여 성취기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영어 수업과 평가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연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전략이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한 국외 교육과정의 사례도 있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는 만큼 이들을 참조한다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구현 및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2. 내용체계표 및 성취기준 명료화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내용체계표, 언어재료, 성취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체계표는 성취기준과 연계된 것으로서, 성취기준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와 기능을 내용 영역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년군·학교급별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기된 주요 쟁점은 성취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체계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내용체계표가 영어과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1) 내용체계표의 타당성 문제

2015 개정에서는 총론의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와 교육과정에 내용체계표가 도입되었다. 취지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함으로써 내용 간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것, 다양한 사고 및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c). 이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성취기준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용어들이 영어 교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Y. Kim(2018), S. R. Park(2018), S. Lee(2016)를 들 수 있다. Y. Kim(2018)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구체적이라기보다 추상적 차원에 속하고, 연마의 대상이라기보다 탐구의 대상이어서 실용적 기능교과의 주된 구성 요소로 적합하지 않다”(p. 40)고 하였다. S. Lee(2016)도 영어과는 기능과 수행이 중심이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에 이를 담기 어렵고, ‘핵심 개념’에 기능을 담게 되면 다른 구성 요소인 ‘기능’과 중첩

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말이나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를 ‘일반화된 지식’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기능으로 제시된 ‘파악하기’는 ‘이해하기’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의 내용체계표에 대한 이해와 실행 경험을 조사한 S. R. Park(2018)도 내용체계표의 용어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일반화된 지식’은 ‘성취기준’과 비슷하며, 내용체계표에서 제시하는 ‘기능’이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내용체계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반복되었다. 심지어 시간개발 연구인 C. B. Imm 외 20인(2015)에서도 영어과는 ‘핵심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을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교과임을 밝히고 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핵심요소로 해당하는 것을 핵심개념으로 선정하고, 이들 핵심요소가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내용(일반적인 지식)으로 기술하였다”(p. 13)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영어과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체계표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H. M. Joo 외 7인(2021)에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용체계표의 용어와 내용을 재설정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특히 ‘기능’을 삭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유는 ‘일반화된 지식’과 중복되는 점, 교수학습으로 다양하게 구현하는 것이 맞으며, 일부 기능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내용체계표를 재구조화하여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U. Maeng 외 8인(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기초 연구에서 제안한 ‘지식·이해, 기능, 가치 및 태도’의 틀을 토대로 영어과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의미를 규정하고, 새로운 내용체계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식·이해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지식(language knowledge)을 이루는 언어 요소”(p. 120)이며, 기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정에서 언어 요소를 가지고 유의미한 상호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영어를 내재화하는 과정”(p. 120)이다. 가치 및 태도는 유의미한 학습이 지속되도록 하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을 활용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보다 영어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읽기 영역의 내용체계표의 예시를 살펴보면, 세부 범주와 요소의 구분에 대한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지식·이해’에서 이해와 ‘기능’의 이해 기능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료하지 않다. 또한 ‘세부 정보’, ‘중심내용’, ‘논리적 관계’ 등을 ‘지식·이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요약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내용체계표의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은 언어의 사용

을 강조하는 기능 중심의 영어 교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 수행된 정책연구에서는 ‘지식·이해’, ‘기능’, ‘가치 및 태도’를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어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U. Maeng 외 8인, 2021), 여전히 세부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내용체계표의 세부 내용은 결국 성취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체계표 구성은 성취기준의 구성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내용체계표를 잘 구성하면 개별 성취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고 상호 간 연계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S. R. Park(2018)은 내용체계표는 교사들이 영어 수업의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내용체계표와 함께 성취기준의 명료성에 대한 문제도 같이 살펴본다면 추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취기준의 명료성과 내용체계표 구성 문제

그간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명료성과 기술 일관성 부족 문제는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쟁점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별로 ‘학습활동 예시’를 제공한 것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해설’을 제공한 것은 성취기준 진술문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명료성 부족 문제는 교사들의 인식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Y. A. Lee(2015a, 2015b)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명료성에 대한 초, 중, 고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5점 만점 척도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은 3.8, 중학교 교사들은 3.35~3.46의 평점으로 응답하여, 긍정적 응답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성취기준 명료성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S. R. Park(2018)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성취기준이 수업 내용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인식하였지만, 특정 단어(예: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나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고, 문장 기술도 추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S. H. Kim(2020)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성취기준 진술이 모호하여 개별 교사의 해석에 따라 수업이 쉽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B. C. Lee(2021a)의 설문조사에서도 초·중학교 교사들의 성취기준 명료성(학습 목표, 내용, 평가, 이수 기준 측면)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 2.97~3.55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성취기준의 명료성이 미흡하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성취기준 진술문의 구성 원리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J.

Jeon과 J. R. Kim(2018)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유럽 공통언어 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의 언어 능력 기술 방식을 비교하면서, CEFR은 의사소통 상황과 전략, 도움 정도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명료성이 높다고 보았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명료성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인 기능(functions), 상황(situations), 화제(topic)를 성취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구체성 및 명료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C. B. Imm 외 18인, 2011). 이에 소재의 경우 ‘자기 주변 주제’, ‘일상생활 주제’, ‘일반적 주제’, ‘비교적 다양한 주제’, ‘다양한 주제’로 학년군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성취기준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상황과 기능의 경우 어떻게 위계와 범주를 설정하여 성취기준에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과 성취기준 진술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H. M. Joo 외 7인(2021)에서 전문가들은 성취기준의 개선 방향으로 학교급별 소재의 명료화, 입력(input) 및 출력(output)의 수준 명료화 및 일관된 적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성취기준의 진술 방식에서 소재를 명료화하고, 입력 및 출력의 수준을 분명히 구분하며, 의사소통의 상황(situations)이나 기능(functions)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H. M. Joo 외 7인(2021)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기술되는 성취기준에 이를 모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입출력의 난이도는 동일 학년군 내에서 공통 적용되는 부분으로 개별 성취기준에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입력 및 출력의 수준에 관계되는 어휘, 언어형식, 소재는 이미 교육과정의 ‘별표’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급별로 구분되어 제시된 것들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취기준의 명료화 문제는 진술문 자체를 수정하는 것보다 이들 ‘별표’ 내용과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실제 C. B. Imm 외 8인(2013)에서는 성취기준과 ‘별표’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언어형식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취기준의 의미를 명료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다수도 이에 동의하였다. 현재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성체제에서 성취기준과 ‘별표’ 내용과의 연결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치는 ‘내용체계표’이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및 ‘별표’ 내용의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용체계표를 구성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내용체계표의 목적과 취지, 성취기준의 구성 원리를 설명한다면, 성취기준 명료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

고,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설계에 실제적인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S. Lee 외 8인(2019)의 연구는 미국 외국어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사소통의 주제 및 맥락, 텍스트 유형 및 난이도, 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의사소통기능, 언어 지식(어휘, 언어형식)을 중심으로 내용체계표(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취기준의 적정성 강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적정성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이다.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에서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내용의 적정성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적정성을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 타당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E. K. Lee, 2005; J. K. Pae & H. M. Joo, 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연구들은 대부분 양과 수준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P. A. Hwang(2016)은 CEFR과의 비교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읽기 성취기준의 적정성을 알아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읽기 성취기준의 개수는 이전보다 감소되었으나, 수준은 상향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읽기 성취기준은 발달 단계에 따라 연계성 있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S. Y. Yim(2020)은 교육과정 시기별 초등학교 영어 성취기준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P. A. Hwang(2016)과 마찬가지로 성취기준의 개수는 7차 교육과정 시기 95개에서 2015 개정 시기 45개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질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수의 감소가 학습 양과 수준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 개의 성취기준을 합쳐 하나의 성취기준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분석한 S. H. Kim(2017)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기준의 개수는 2009 대비 학년군별로 13개씩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성취기준의 개수가 양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학습의 양과 수준이 감소하지는 않았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현장 교사들이 인식하는 성취기준 양과 수준의 적정성을 탐색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B. C. Lee(2021b)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성취기준 양과 수준의 적정성을 알아보았으며, 5점 척도에서 초등과(양 3.53, 수준 3.42), 중등(양 3.21, 수준 3.25) 모두 보통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성취기준 영역별로 적정성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J. K. Pae(2020, 2021)와 J. K. Pae 외 4인(2021)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기

준의 양과 수준 적정성을 조사하였다. 3~4학년군에서는 성취기준의 양과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쉽거나 적다는 응답이 어렵거나 많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점이 특징이었다. ‘쓰기’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수준은 어렵고 양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5~6학년군에서도 성취기준 양과 수준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0.9%로 다른 영역보다 많았다. 중학교 1~3학년군에서도 성취기준의 양과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양과 수준이 쉽거나 적다는 응답이 어렵거나 많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았고, ‘말하기’의 양이 적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S. H. Kim(2020)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성취기준 영역별로 양과 수준의 적정성을 알아보았는데,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 점이 달랐다. 연구의 결과 모든 학년군과 영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응답 평균은 5점 척도에 초등 3.5~3.8, 중등 3.2~3.6이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영어교사들은 성취기준의 양과 수준 적정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쓰기’ 영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양이 부족하거나 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조직 측면에서 성취기준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J. K. Pae와 H. M. Joo(2021)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취기준에 대하여 학년군·학교급별 연계성과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내 그리고 영역 간 연계성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초등과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초·중학교 교사들은 성취기준의 종적 연계성(학년군별, 학교급별)과 영역 연계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취기준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확인되었다. 예컨대 말하기 영역의 ‘소개하기’는 3~4학년군(자기 소개), 5~6학년군(주변 사람 소개), 중 1~3학년군(자기 소개) 간에 위계성이 부족한 점, 쓰기 영역에서는 3~4학년군에서 중1~3학년군까지 수준의 비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영역 간 연계성 측면에서도 3~4학년군의 소리와 철자 관계에 대한 성취기준이 읽기에는 있지만 쓰기에 없는 점, 중 1~3학년군에서 주제와 요지 관련 성취기준은 듣기와 읽기에만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종적, 횡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취기준의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 성취기준의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 영어과의 성취기준은 언어 기능 중심으로 진술되기 때문에 개수와 학습의 양은 관련성이 높지 않다. 성취기준의 수준

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둘 부분은 ‘쓰기’ 영역으로 판단된다. 다른 영역에 비해 ‘양’은 부족하고 ‘수준’은 어렵다는 현장 교사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용 적정성을 구성하는 성취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학습활동, 담화 유형, 언어 형식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삭제되었는데(S. H. Kim, 2017; S. Y. Yim, 2020), 어떤 성취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성취기준 진술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M. Lee와 H. Jung(2020)이 제안한 것처럼 성취기준의 목적과 의미,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것에도 관련될 것이다.

4.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차별성 및 실효성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7차 교육과정 시기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부합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였다(E. K. Lee, 2006). 당시 선택 과목은 영어I, 영어 II,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회화였으며, 이후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선택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과목 구성이 변경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학생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과목의 개설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택과목 관련 연구는 과목 구성(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편성·운영 현황을 조사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교육과정 개발 시기에, 후자는 교육과정 적용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 나타난 주요 쟁점은 선택과목의 구성 및 과목 간 차별성, 편성·운영의 실

효성이다. I. Kim 외 6인(2014)에서는 선택과목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안)을 개발하고자 고등학교 교사 1,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과목 간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아서”가 54.5%, “현재 과목수가 너무 많아서”가 30.8%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수가 15개에 이르렀던 만큼, 그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과목 신설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는 ‘영어권 풍습과 문화’가 34%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권 명작 읽기’가 24%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라는 과목 개설에 반영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구성(안)에 관련된 H. M. Joo 외 7인(2021)과 U. Maeng 외 8인(2021)의 연구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간 차별성 문제를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진로 선택과 전문교과 I은 과목 간 내용이 중복되고 과목의 성격이 모호”(H. M. Joo 외 7인, 2021, p. 153)한 점, 일반 선택의 ‘영어 회화’와 진로 선택의 ‘실용 영어’도 과목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U. Maeng 외 8인(2021)은 2022 개정 총론의 방향과 H. M. Joo 외 7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 균을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재편하였으며, 이는 교육부의 총론 주요 사항 발표에 반영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2015개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2015 개정에서 진로 선택으로 분류된 ‘영어권 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기 위해 ‘세계 문화와 영어’로 변경되면서 융합 선택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해당 과목 분야에 ‘미디어 영어’가 신설되었다. 진로 선택의 과

TABLE 3
Subjects in the High School English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21)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Common subjects	English	Common subjects	Common English 1, 2 (Basic English 1, 2)
General electives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I English reading and writing English II	General electives	English I, English II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areer electives	Practical English Cultur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Career English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Career electives	Reading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Englis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ccupational English (Advanced English, Advanced English reading and writing)
Specialized subjects	Advanced English speaking I, II Advanced English I, II Advanced English reading I, II Advanced English writing I, II	Convergence electives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Media English World cultures and English

목 ‘영미문학 읽기’는 이전과 동일하고, ‘진로 영어’가 삭제되고 ‘직무 영어’가 신설되었으며, 전문 교과 I의 과목들이 진로 선택에 통폐합되었다.

선택 과목 구성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목 간 차별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목 구성안을 개발한 U. Maeng 외 8인(2021)의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고교학점제 선도 및 연구학교 교사들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등 다양한 주제 분야와 융합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이 진출한 진로 분야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또한 ‘융합 선택’은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의 성격 중 실생활에서 영어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로 구성”(p. 149)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융합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융합 선택으로 분류된 ‘실생활 영어 회화’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의 과목들에 포함된 듣기, 말하기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

선택과목 편성·운영의 실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편성·운영 실태를 살펴본 연구는 S. Cho와 H. Kim(2018)과 S. H. Kim(2021)이 있다. S. Cho와 H. Kim(2018)은 전국의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1763개교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의 편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은 영어 I(95.6%)과 영어 II(57.8%)였다. 진로 선택에서는 실용영어(18.1%)와 영어권 문화(15.3%)가 많이 개설되었으며, 진로 영어는 8.1%의 학교에서 개설되어 활용도가 가장 낮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를 조사한 S. H. Kim(2021)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 선택의 영어 I과 영어 II는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개설된 반면, 진로 영어는 14개 교에서만 개설되었다. 진로 선택의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선택보다 개설률이 낮은 것은 일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 진로 영어의 개설이 미진한 점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다. 진로 영어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함께 취업이나 일반 직무에 필요한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해당 과목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실제 활용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군의 성격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Y. A. Lee(2015b)의 설문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교사들은 진로·직업 관련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선택 과목 구성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진로·직업 분야에 따른 다양한 과목’보다는 ‘일반적인 영어 능력의 추구’와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른 다양한 난이도의

과목’에 대한 응답이 더 많았던 것이다. U. Maeng 외 8인(2021)은 특수 목적 영어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며, 신설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선택 과목 간의 차별성과 편성·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한 학계 및 교육계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특수목적 영어의 내용과 수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2022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는 과목별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성취기준에서 차별성을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군에서 신설 되는 과목들의 경우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실제 학교에서의 편성·운영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적용, 평가에 관련된 학술지 논문과 정책연구보고서 총 42건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과 교과역량의 설정, 명칭 및 개념,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면서 정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간의 위계 및 하위 요소 중첩 문제, 동일 역량 내 하위 요소의 결합성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역량이 교육과정 문서에 실제적으로 반영된 정도도 낮기 때문에, ‘문화이해 역량’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의 경우 외국 교육과정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성취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체계표는 학습 내용의 연계성이나 성취기준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지만, 영어과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별표’에 제시된 소재, 어휘, 의사소통기능 등과 성취기준을 모두 포괄하여 구성하고 텍스트 유형 및 난이도 등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성취기준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수의 감축보다는 질적인 변화와 종적·횡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준의 측면에서는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취기준의 목적과 의미, 용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고등학교 선택과목 간의 차별성과 편성·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특수목적 영어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다. 편성·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영어과 교육과정 자체의 개선에 필요한 쟁점 및 과제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것 못지 않게, 영어교육의 현안 및 발전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은 사회, 교육적 변화의 반영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미래 영어교육 및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연구들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W. Lee(2015)는 상시 연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적용의 경직성 완화, 창의력을 억제하고 평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교육의 지양, 학생들 간의 영어 격차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G. No(2021)는 생활 영어와 기능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확장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인지 학습을 결부한 듣기와 읽기 중심의 영어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H. M. Joo(2019)는 미래 영어교육의 방향으로 개별화 교육, 지식 활용 교육, 직업·진로 교육, 인성·감성 교육, 다문화교육에 대한 강조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체험 중심 교수학습 등을 제안하였다. H. Kim(2021)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어 교육 방향으로서 디지털 리더러시의 개념 정립,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교육 모형 발굴,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으로 수렴되지 않을지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결국 학교 영어교육의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가 학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2009 개정 대비 활발하게 이루어진 면은 있지만, 정책 연구에 주로 참여하는 소수 연구자들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정에 대비한 실제적인 목적의 정책 연구들은 많지만, 학술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성취기준의 목적과 의미 및 진술 방식, 역량 요소들의 위계화 및 평가 방안, 학습 시간 대비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설정한 수준의 적정성 여부, ‘별표’에 포함된 ‘어휘’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등의 질적 개선에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Pearson Educatio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elce-Murcia, M., Dornyei, Z., & Thurrell, S. (1995). Communicative competence: A pedagogically motivated model with content specification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6, 5-35.
- Cho, Sang-sik, & Kim, Hyun-kyung. (2018). *An inquire in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optional subjects follow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ystem* (MOE-Commissioned-2018-25). Ministry of Education & Dongguk University.
- Graves, K. (2014). Syllabus and curriculum design for second language teaching. In M. Celce-Murcia, D. M. Brinton, & M. A. Snow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4th ed., pp. 46-62).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 Heinle Cengage Learning.
- Han, Hye-chong, Kim, Ki-chul, Lee, Joo-youn, & Chang, Kyung-suk. (2018). Exploring issu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1(3), 1-24.
- Hwang, Pil-Ah. (2016).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primary English reading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4), 147-165.
- Hymes, D. (1992). The concep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revisited. In M. Putz (Ed.), *Thirty years of linguistic evolution* (pp. 31-57).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Imm, Chan Binn, Jin, Kyung-Ae, Lee, Moonbok, Chang, Kyung Suk, Kim, Mi-Kyung, Lee, Byeong Cheon, Kim, Sung Hye, Kwon, Oryang, Kim, Inseok, Lee, Hyunoo, Oh, Junil, Kim, Youngsuk, Lee, Seonghee, Lee, Byungmin, Park, Hanjun, Han, Jeonghee, Baek, Inwhan, Cheong, Yangsoon, & Kim, Yumi.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vised English Curriculum* (CRC 2011-12).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m, Chan Binn, Lee, Moonbok, Lee, Hyewon, Joo, Hyung Mi, Kim, Sung Hye, Lee, Young-A, Lee, WonKey, Kim, Jinwan, & Min, Chankyoo. (2013). *Exploring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r future society* (CRC 2013-25).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m, Chan Binn, Lee, Moonbok, Lee, Hyewon, Kim Sung Hye, Joo, Hyung Mi, Cho, Bokyoung, Yim, Su Yon, Kim, Jun-Shik, Lee, WonKey, Lee, Young-A, Lee, Jeong-Won, Cha, Kyung-Whan, Min, Chan-Kyoo, Choi, Yeon Hee, Kim, Jinwan, Park, Hanjun, Kwon, Heejoo, Kang, Hyejeong, Goo, Misoon, Woo, Eunjung, & Lee, Heejong. (2015). *Development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I: English* (CRC 2015-2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m, Chan Binn, Lee, Moonbok, Lee, Hyewon, Kim, Sung Hye, Joo, Hyung Mi, Cho, Bokyoung, Yim, Su Yon, Park, Yonghyo, Kim, Soyeon, Lee, WonKey, Choi, Yeon Hee, Shin, Dongkwang, Song, Min-Young, Eur, Do Seon, Lee, Young-A, Kim, Jinwan, Maeng, Unkyoung, Park, Hanjun, Kwon, Heejoo, Kwon, Youngae, Yoon, Young-Ae, Kang, Hyejeong, Cho, Jihyung, Woo, Eunjung, Kim, Eunha, Park, Byung Hyo, & Park, Jeongeun. (2015). *Development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II: English* (CRC 2015-25-12).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eon, Ji-hye, & Kim, Jeong-Ryeol. (2018). An analysis on

- the standard of language competence between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and CEFR Basic User Lev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7), 65-87.
- Joo, Hyung Mi. (2019). New directions for the future elementary and secondary English education in Korea.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2(4), 49-73.
- Joo, Hyung Mi, Kim, Jong-Yun, Bae, Hwasoon, Byun, Hee Hyun, Ryu, Kumbok, Seo, Jiyoung, Jang, Gunjoo, Park, So-Young, & Pae, Jue-Kyoung. (2020). *Analysis of the appropriaten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ubject contents i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RRC 2020-6-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Joo, Hyung Mi, Kim, Sung Hye, Park, Taejoon, Pae, Jue-Kyoung, Kang, Hyejung, Maeng, Unkyong, Yoon, Sangdon, & Lee, Young-A.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in the post-COVID era* (CRC 2021-13).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ang, Jung Jin. (2016). The implementation of competencies-based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with a transformative perspectiv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4), 93-117.
- Kim, Heyoung. (2021).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English Teaching*, 76(s1), 87-105.
- Kim, Hye-Ryun. (2018). A study on instructional consulting in elementary English lessons fo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project-based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 38(2), 305-326.
- Kim, Inseok, Lee, WonKey, Park, Jun Eun, Im, Chan Binn, Lee, Young-A, Woo, Eunjeong, & Park, Hanjun. (2014). *A study on restructur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r integration of humanities and sciences* (No. 2014-9). Ministry of Education & Dongduk Womens University.
- Kim, Jeong-Ryeol. (2015). Nocebo effect of 2015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Proceedings of Korean Association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Spring Conference*, 93-101.
- Kim, Mijin. (2019).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competence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3(2), 108-117.
- Kim, Sung Hye. (2017). Analysis of chang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Modern English Education*, 18(3), 91-111.
- Kim, Sung Hye. (2020).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content appropriateness in Korea's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Teaching*, 75(2), 93-110.
- Kim, Sung Hye. (2021). A study on improving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Modern English Education*, 22(3), 34-44.
- Kim, Sung Hye, Cho, Yoon Dong, Kim, Myong Hwa, Park, Tae Joon, & Cho, Ho Je. (2019). *Improving the National Curriculum for math and English low achiever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RC 2019-5).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im, Yongsuk. (2018). An analysis of content structure matrix for primary English education i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4(4), 31-59.
- Kim, Yongsuk. (2019). A critical examination of culture education i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for primary English education. *Primary English Education*, 25(4), 55-78.
- Kim, Youngwoo, & Kim, Joohae. (201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LT programs and curricula in Korea. *English Language Teaching*, 27(2), 57-83.
- Kwon, Jeom Rae, Park, Eun-Ah, Kim, Hyun-Kyong, Lee, Young-Mi, Kang, Min-Kyu, Song, Min-Young, Pae, Young-Kwon, & Seo, Young-Jin. (2016a). *Ways to implement 2015 Revised National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Focused on Korean language arts, social studies, math, science, English, integrated subject* (RRC 2016-8-2).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won, Jeom Rae, Park, Eun-Ah, Kim, Hyun-Kyong, Lee, Young-Mi, Kang, Min-Kyu, Song, Min-Young, Pae, Young-Kwon, & Seo, Young-Jin. (2016b). *Ways to implement 2015 Revised National Middle School Curriculum: Focused on Korean language arts, social studies, math, science, English, information subject* (RRC 2016-8-3).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Byeong Cheon. (2020). Restructuring achievement standa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6(1), 19-38.
- Lee, Byeong Cheon. (2021a). A study on standard setting of English curriculum completio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4(2), 67-86.
- Lee, Byeong Cheon. (2021b). The role of achievement standards in 2022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Teaching*, 76(3), 139-158.
- Lee, Eui-Kap. (2005). A study on the relevance of secondary English based 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rom the perspective of quantity and level.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1), 247-272.
- Lee, Eui-Kap. (2006). A study on English as elective subjects for 11-12 grade students in Korean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4), 299-324.
- Lee, Kyung-Min, & Chun, Se-Young. (2017). A study on English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7(3), 307-333.
- Lee, Mee-Kyeong, Yang, Jeong-Sil, Seo, Young-Jin, Byun, Hee-Hyun, Choi, Jung-Soon, & Lee, Young-A. (2014). *Exploring future directions for subject curriculums: The cases of Korean language arts, mathematics, English, social studies, and science* (RRC 2014-6).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Moonbok. (2014). A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for integrating the liberal arts and the sciences. *Modern English Education*, 15(3), 277-295.
- Lee, Moon-bok, & Jung, Hee-jung. (2020).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achievement standards for a long-term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schools. *English Reading and Teaching*, 5(1), 1-33.
- Lee, Seung-mi, Lee, Byeong cheon, Baek, Kyeongsun, Bae, Hwasoon, Lee, Gyeong-nam, Kim, Sun hee, Kim, Heekyong, Lee, Young-A, & Oh, Soo jung. (2019). *National curriculum design for element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in compliance with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autonomy policy* (RRC 2019-7).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Soyoung. (2012). A critique of the 2009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6(3), 731-747.
- Lee, Soyoung. (2016). Major changes and issues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With a focus on its common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499-519.

- Lee, WonKey. (2015). Revisions of the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English Teaching*, 70(5), 35-52.
- Lee, Young-A. (2015a). A surve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the 2009 National English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1(2), 5-37.
- Lee, Young-A. (2015b).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9(2), 571-596.
- Maeng, Unkyoung, Ko, Mi Ra, Pae, Jue-Kyoung, Ahn Kyung Ja, Lee, Sangmin, Chang, Seung Ah, Jeong, Da-un, Joo, Hyung Mi, & Hwang, Jong-Bai. (2021). *Policy suggestions for restructuring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o develop core competences* (2021-Commissioned-13). Ministry of Education & Ajou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MOE Official Announcement 2015-74, Book No. 14).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5c). *Guide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igh schools* (No. 11-1342000-000331-14).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1). *Announcement of major changes i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November 24, 2021). Ministry of Education.
- No, GyeongHee. (2021). Suggestions for future-oriented primary English curriculum: Toward personalize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2(3), 151-165.
- Norris, J. M., & Ortega, L. (Eds.). (2006). *Synthesizing research o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ae, Jue-Kyoung. (2020). An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grades 3-4. *Primary English Education*, 26(3), 81-103.
- Pae, Jue-Kyoung. (2021). An analysis of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for the 5th-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support needs. *Primary English Education*, 27(3), 81-104.
- Pae, Jue-Kyoung, & Joo, Hyung Mi. (2021). A study on the content appropriateness of the 2015 Revise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nglish Curriculum: Focusing on content organizatio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14(3), 29-51.
- Pae, Jue-Kyoung, Kim, Jong-Yun, Kim, Sangbum, Pae, Hwasoon, Byun, Hee Hyun, Ryu, Kumbok, Lim, YunJin, Jo, Kihee, Jang, Gunjoo, Park, So-Young, & Lee, Seung-mi. (2020). *A study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mplementation: Focusing on the 5th and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RRC 2020-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e, Jue-Kyoung, Kim, Jong-Yun, Kim, Sangbum, Pae, Hwasoon, Jo, Yun Dong, Kim, Hyunjung, Jo, Kihee, Jang, Gunjoo, Park, So-Young, Lee, Seung-mi, & Kim, HyeSook. (2019). A study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mplementation: Focusing on the 3rd and 4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RRC 2019-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e, Jue-Kyoung, Park, Jinyoung, Seo, Ji-Young, Lee, Kyung-Eon, & Park, So-Young. (2021). *A study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mplementation: Focusing on Korean, English, physical education, music, and art subjects in middle school* (RRC 2021-9-1).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rk, Kihwa. (2014). Application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curriculum for key competence development.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9(2), 53-73.
- Park, Soo Ryun. (2018).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experience in the subject curriculum: Focusing on content table and achievement standard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7), 69-94.
- Yim, Su Yon. (2020). History of revision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English national curricula. *Primary English Education*, 26(4), 249-271.